

‘희망 한 컵’

내 맘을
빛들어도
다 뭉개
파뿌리
담아
권 있는
당신께



ACC, 지역 업체 ‘역서사소’와 콜라보 굿즈 ‘사투리 희망 메시지 컵’ 출시

사투리를 모티브로 문화상품을 선보여왔던 지역업체 ‘역서사소’가 콜라보 결과물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역서사소’는 전라도 방언을 예술적으로 활용해 상품을 개발해온 디자인 업체다. 지금까지 ‘전라도말’이 담긴 엽서와 달력 등을 출시해 이목을 끈 바 있다. 또한 작년 ACC에서 진행한 지역상품 발굴 공모에서 위탁판매 입점 기회를 따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굿즈는 코로나로 지친 이들과 공감하고 나아가 희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투리 희망 메시지 컵’은 지난해 ACC 컬처쇼 특별상품 기획으로 추진한 문화상품 중 하나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격려, 응원 메시지를 전라도 특유의 위트로 담아냈다. 친근한 구어체는 마치 옆에 있는 이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착각을 준다.

“심들어도 기언치 버틴 나에게”, “뭇인들 향꾸네 하고 싶은 너에게”, “내 맘을 따뭉 담아 권 있는 당신께” 등은 진심어린 위로와 아들려진 미소를 짓게 한다.

특히 디자인과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한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성과 공감의 스토리가 만들어낸 효과다. 이처럼 굿즈 매력은 단순히 상품 구매를 넘어 문화를 소비하고 공유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ACC 관계자는 “이번 콜라보는 지역이 발산하는 문화적 가능성에 주목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혀 굿즈를 완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역서사소 문화상품은 ACC컬처쇼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Live Strong No.6’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도훈 개인전, 4월7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하도훈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4월7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열린다.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이야기를 소재로 작업해왔던 작품들을 선보이며 첫 번째 개인전인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전시를 개최한다. 평면회화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작품과 설치미술을 아우르는 전시를 구성했다.

작가의 작품은 거침없는 붓터치를 표현해내며 색을 변형해가는 작업을 구현해 낸다. 붓터치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중압감들은 현대사회에 대한 작가의 울부짖음이다. 작가는 자본주의에 매료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작업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며 이러한 감정들을 작품으로 그려낸다.

작품은 무질서속에서 질서를 찾는 듯한 과감한 붓터치의 배경화면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형태가 그려진다. 작품은 내적 에너지들이 표출되는 과정을 순간순간 과감하고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된다.

작가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과감한 터치들은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현대인들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4월 공연바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The Light’...시립발레단 ‘오월바람Ⅱ’
시립극단 ‘레옹세와 레나’...시립교향악단 ‘로맨틱 프라하’



광주시립발레단

‘The Singing Heart’, ‘Northern Nights’, ‘Stars’ 등이며 조성은의 ‘별’, 윤이상의 ‘반딧불’, 이현철의 ‘나눔’ 등도 들려준다.

4월9일에는 2021 교향악축제 프리뷰 무대(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가 마련된다. 지난 25일 위촉장을 받은 광주시립교향악단 흥석원 지휘자의 첫 무대이며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발레단의 ‘오월바람Ⅱ’는 4월8-9일 오후 7시30분, 10일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이며 80년 5월 당시 조선대 무용과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계엄군에 맞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항거의 과정을 담았다.

광주시립극단은 24세의 나이로 요절한 독일의 극작가인 게오르크 뷔히너(1813-1837)의 ‘레옹세와 레나’를 무대에 올린다. 4월22-23일 오후 7시30분, 24일 오후 3시-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원광연극협회협장이 각색·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권태로운 삶에 지친 왕자 레옹세가 정략결혼을 피해 달아나며 벌어지는 엉뚱하고 유쾌한 소동을 다룬 희극이다. 유쾌함의 이면에는 꼭두각시로 전락한 궁정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신랄한 정치적 풍자가 숨겨져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로맨틱 프라하’는 4월27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을 초청해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드보르작 ‘교향곡 8번 G장조’를 들려준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구동! 꼬불꼬불 꼬부기 투어’ 31일 광주공원 일대

미디어체험도 하고, 성거사지오층석탑도 둘러보고...

광주공원 일대 관광프로그램 ‘구동! 꼬불꼬불 꼬부기 투어(이하 꼬부기 투어)’가 문화가 있는 날인 31일 처음 시작된다.

‘꼬부기 투어’는 광주 최초 도심공원 광주공원 기능을 살리고 구도심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공원 광합성 프로젝트’. 지난해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을 비롯해 광주공원 일대 14개 기관이 협약을 맺었다.

이번 ‘꼬부기 투어’는 광주여행 전문 심비오협동조합(대표 고영임)이 기획했다. 지난 2020년 10월에 ‘거북이투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꼬부기투어’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했다.

광주공원 일대 문화프로그램 및 유적지 답사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미디어전시체험-유적지 답사-보고 듣는 광주향교 등 전시·답사·이야기 등으로 펼쳐진다. 접수 및 문의 010-6743-7469, 010-3602-527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뮤지컬 ‘광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뮤직비디오 공개

뮤지컬 ‘광주’가 신우와 이분소리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뮤직비디오 트레일러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1980년 광주 학살의 증인이 된 박한수가 양심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당시 민주주의 열망으로 가득 찼던 광주를 회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B1A4의 메인 보컬 신우와 뮤지컬배우 이분소리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버는 더이상 평화로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담은 가사를 통해 광주를 지키고자 하는 문수경과 박한수의 굳은 결심을 드러낸다.

특히 모든 배우들이 모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전하는 마지막 장면은 소박하고 평범한 이웃들이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임을 또렷하게 표현했다.

앞서 뮤지컬 ‘광주’는 광주의 거리를 배경으로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이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낸 첫 번째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대한민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부문] 수상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